

Why Your Manuscripts Were Rejected or Required a Major Revision: An Analysis of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Choong C. Lee*, Haejung Yun**, Seong-Hoon Hwang**

As the common saying attests, a *publish-or-perish world*, publishing is absolutely critical for academic researchers' successful careers. It is the most objectively-accepted academic performance criteria and the most viable way to attain public and academic recognition.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APJIS) has been recognized as the most influential domestic journal in Korean MIS field since July, 1991. Therefore, publishing in APJIS means your research is original, valid, and contributive. While most researchers learn how to publish an article in APJIS through a repetitive review process, thereby improving their chance of the 'accepted' through their personal trial and error experiences, such valuable lessons and know-how tend to be kept personally and rarely shared. However, useful insights into research and publication skills could be also gained from sharing others' errors, neglect, and misjudgments which are equally critical in improving researchers' knowledge in the field (Murthy and Wiggins, 2002). For this reason, other academic disciplines make systematic efforts to examine the paper review process of major journals and share the findings from these studies with the rest of the research community members (Beyer et al., 1995; Cummings et al, 1985; Daft, 1995; Jauch and Wall, 1989; Murthy and Wiggins, 2002). Recognizing the urgent need to provide such type of information to MIS research community in Korea, we have chosen the most influential academic journal, APJIS with an intention to share the answer to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common problems found in the manuscripts either 'rejected' or 'required a major revision' by APJIS reviewers?"

This study analyzes the review results of manuscripts submitted to APJIS (from January, 2006 to October, 2008), particularly those that were 'rejected' or required a 'major revision' at the first round. Based on Daft's(1995) study, twelve most-likelihood problems were defined and used to analyze the reviews. The twelv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r "twelve problems", are as follows: *No theory, Concepts and operationalization*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not in alignment, Insufficient definition--theory, Insufficient rationale--design, Macrostructure--organization and flow, Amateur style and tone, Inadequate research design, Not relevant to the field, Overengineering, Conclusions not in alignment, Cutting up the data, and Poor editorial practice.

Upon the approval of the editorial board of *APJIS*, the total 252 reviews, including 11 cases of 2005 and 241 cases from July, 2006 to October, 2008, were received without any information about manuscripts, authors, or reviewers. Eleven cases of 2005 were used in the pilot test because the data of 2005 were not in complete enumeration, and the 241 reviews (113 cases of 'rejection' and 128 ones of 'major revision') of 2006, 2007, and 2008 were examined in this study.

Our findings show that *insufficient rationale--design*(20.25%), *no theory*(18.45%), and *insufficient definition--theory*(15.69%) were the three leading reasons of 'rejection' and 'major revision.' Between these two results, the former followed the same order of three major reasons as an overall analysis (*insufficient rationale--design, no theory, and insufficient definition--theory*), but the latter followed the order of *insufficient rationale--design, insufficient definition--theory, and no theory*.

Using Daff's three major skills-- 'theory skills', 'design skills', and 'communication skills'-- twelve criteria were reclassified into 'theory problems', 'design problems', and 'communication problems' to derive more practical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Our findings show that 'theory problems' occupied 43.48%, 'design problems' were 30.86%, and 'communication problems' were 25.86%. In general, the *APJIS* reviewers weigh each of these three problem areas almost equally. Comparing to other disciplines like management field shown in Daff's study, the portion of 'design problems' and 'communication problems' are much higher in manuscripts submitted to the *APJIS* than in those of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and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even though 'theory problems' are the most predominant in both disciplines.

Keywords : MIS Research, Manuscript Review Process, Rejection, Major Revision, Content Analysis

MIS 논문의 '게재 불가' 및 '수정 후 재심사' 사유: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심사소견서 분석

이 중 정, 윤 혜 정, 황 성 훈

I. 서 론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경영정보학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새로운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학계와 업계에 기여하고자,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연구의 학문적이며 실천적인 공헌을 최대한 인정받으려 하는 모든 연구자의 바람은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고 독자층이 가장 넓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공통된 노력으로 표출된다

(Schneider, 1995). 연구를 막 시작한 학생에게도, 본인의 연구 업적과 분야가 이미 뚜렷한 교수들에게도 우수 학술지 게재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경영정보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지이며 SSCI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APJIS, 구 “경영정보학연구”)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연구의 독창성, 기여도,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것으로 국내 경영정보학 연구자들이 모두 바라는 바일 것이다. 이러한 APJIS의 국내 학계에서의 중요성은 구성원 모두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수문장(gatekeeper)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며 학계의 학문적 질서(rigor)와 학문적 적절성(relevance)을 잡아 주는 조타수로서의 역할 또한 피할 수 없는 의무가 되고 있다. 또한 이제 국제 학술지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APJIS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국내외의 모든 경영정보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편집 방향과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PJIS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편집방향보다는 더 구체적이면서, 논문 심사과정에서 제공되는 개별 심사의견 보다는 더 일반적인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논문 심사자의 주요 심사기준 성향을 3개년 간의 심사소견서 분석을 통하여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991년 7월 제1권 제1호가 발간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19권 제1호, 총 528편의 논문을 통하여, APJIS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성공적으로 게재된 논문들을 접하면서 간접적으로 좋은 논문에 대한 정보는 습득할 수 있었으나, 게재에 실패한 논문들이나 투고된 논문들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적인 시사점을 주는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외 학술지에서는 비슷한 연구가 시행된 적이 있으나(Daft, 1995; Murthy and Wiggins, 2002), 국내의 경영정보학

관련 분야에서는 아직 유사한 연구가 시행된 적이 없으므로,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경영정보학분야의 게이트키퍼로서의 APJIS의 역할을 재조명해보고 ‘게재에 실패한 논문이나 주요한 수정을 요청받은 투고 논문들은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봄으로써 논문 투고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연구자들이 좀 더 양질의 논문을 투고하여 최종적으로 APJIS로 대표되는 국내 경영정보학 분야에서의 연구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 10월 21일까지 투고된 논문 중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및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받은 심사소견서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게재 불가(Rejection)’ 사례만을 분석한 해외 유사연구(Murthy and Wiggins, 2002)와 달리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 사례도 연구에 포함한 이유는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 ‘게재 불가’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한 전략과 기술(tactics)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논문이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과 연구가 갖추어야 할 능력(skills)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과정에서 APJIS 편집위원회를 통해 받은 심사소견서만을 분석하였으므로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었음을 밝힌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먼저 심사소견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류하는 12개 기준의 정의와 각 기준별 주요 사례를 살펴본 후,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차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분류 기준

본 연구에서는 심사소견서에 나타난 투고 논문의 문제점들을 <표 1>과 같이 열두 가지 기준

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1번부터 11번의 기준은 Daft(1995)가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와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에 투고하였다가 '계재 불가(rejection)'와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 결정을 받은 원고에 대한 11개의 사례 분석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11개의 분류 기준과 순서를 적용하였고 필요시 국내 상황에 맞게 재정의 하였다. 경영학 및 MIS 분야의 학술지 논문 심사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e.g. Jauch and Wall, 1989), 논문 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e.g. Bedeian, 2003; Bhattacharjee et al., 2004), 투고 논문 원고를 직접 읽고 분석한 메타스터디(e.g. Beyer et al., 1995) 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심사소견서를 읽고 분석하여 문제점별로 분류한 선행연구(e.g. Daft, 1995; Murthy and Wiggins, 2002)는 많지 않았고, Murthy and Wiggins의 연구에 비해 Daft의 연구가 더 포괄적이면서도 자세한 기준별 정의를 제시하고 있고¹⁾ 한 학문 영역의 최고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본 논문의 분류 프레임워크로 선정하였다.

다만, Daft의 연구 결과에서는 1번이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이고 순서대로 진행되어 11번이 가장 적게 지적된 문제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의 기준 서열이 중요도나 빈도수의 순서가 아님을 밝힌다.

연구 분석에 앞서, 2005년도의 11개의 샘플을 가지고 시행한 파일럿 테스트 결과 지적 사항의 하나로 '문법 오류나 오·탈자'가 자주 언급 되었다. Daft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문제 지적이 분류 기준에 들어 있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경우 이러한 문제의 빈도와 논문의 전체적인 질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12번째 분류 기준으로 포함시키도록 결정하여, '문법 오류나 오·탈자 등의 편집상 부주의'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기준별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심사소견서에 나타난 대표 사례들은 논문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원문 그대로 인용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2.1 이론적 타당성 부족

이 분류 항목은 연구가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연구모형이나 가설을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으며 연구 결과에서 이론적인 기여나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2.2 변수와 측정도구의 불일치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조작적 정의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변수는 '태도'로 설정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만족'을 측정하는 경우이다. 내용타당성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의 측정도구를 본인의 연구에 적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컨텍스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측정도구를 잘못 사용해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2.3 이론과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문헌연구 부족

전문 분야의 학술지에 투고한다고 하여 모든 독자들이 특정 개념이나 이론에 전문가라고 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여 이론과 개념, 변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문헌연구 자체가 부족한 점을 지적 받을 때 본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논문을 투고할 때 설문지를 첨부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1) Murthy and Wiggins(2002)는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의 '계재 불가' 사유로는 연구 동기, 이론, 방법론(연구 디자인, 통계 분석), 결론, 저널분야와 일치 여부, 논문의 성숙도 및 공헌 등에 문제가 있을 때라고 제시하고 있다.

<표 1> 분류기준별 심사소견서 인용 사례

문제점 (Problems)	사 례
1. 이론적 타당성 부족 (No theory)	"본 연구의 가설, 설문, 결론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설이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토대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론들로부터 핵심변수 및 연구가설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비약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2. 변수와 측정도구의 불일치 (Concepts and operationalization not in alignment)	"연구변수명 및 조작적 정의가 측정항목들을 대표하고 있는지 다시 검토하십시오." "측정문항에서 ...은 선행 연구의 ... 변수를 상황에 맞도록 수정한 문항으로 보인다. 과연 ... 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옳은지?"
3. 이론과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문헌연구 부족 (Insufficient definition-theory)	"... 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 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단어나 용어 사용에 있어 독자를 배려하지 않아 ... 의 논문을 숙지하고 있지 않은 독자들은 이해가 불가능하도록 쓰여져 있음."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에 대한 설문문항을 논문에서 제시하기 바랍니다."
4. 연구 설계의 논리 부족 (Insufficient rationale-design)	"이 연구에서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 및 ... 을 통제변수로서 고려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관별타당성과 수렴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샘플의 대표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 ... 서비스의 주사용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인 (대)학생들이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일 것이다."
5. 전체 구성이나 흐름의 문제 (Macrostructure-organization and flow)	"분량이 너무 길다." "나열식 형태이므로 현 논문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선행연구 정리방식으로서 지루한 느낌이며 인상적이지 않다." "같은 페이지에서 갑자기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이 부분은 앞서 서론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론적 배경과 가설 부분에서는 연구 모형 전개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흐름상 맞다."
6. 비전문적인 문체나 표현 (Amateur style and tone)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단정 짓는 듯한 문장" "본 연구모형을 미루어 볼 때 '확실히 관계가 있다'는 표현보다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야 한다.'"
7. 부적합한 연구방법론 적용 (Inadequate research design)	"연구방법도 프로세스 모형보다는 variance 모형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 프로세스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longitudinal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듯하다." "본 논문은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을 하는 confirmative study이다. 그러나 방법론으로는 사례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측정은 인터뷰에 의한 정성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 목적과 사용된 방법이 일치하지 않으며..." "지금과는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8. 새로운 공헌이 없어 우리 분야에 맞지 않는 연구 (Not relevant to the field)	"이 논문은 (타분야) 저널에 어울릴 것 같다는 점이다. 우선 reference를 들여다보면 IS에 관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의 참고논문들이 (타분야)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와 ...의 수용에 관한 연구 등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 연구의 기여도가 떨어집니다."
9. 과도하게 복잡한 통계 기법 사용 (Overengineering)	"굳이 간단히 볼 수 있는 pairwise t-test가 아닌 생소하고 복잡한 통계기법을 사용한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
10. 연구와 결론의 불일치 (Conclusions not in alignment)	"연구목적, 연구가설,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11. 데이터 제사용 (Cutting up the data)	"(다른 목적으로 시행했던) 기존 설문 결과의 활용은 변수의 선택에 제약을 가져왔고, 그 결과 논문의 공헌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문법 오류나 오·탈자 등의 편집상 부주의 (Poor editorial practice)	"띄어쓰기 오류 및 오타자,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본문중에 인용된 참고문헌과 논문 마지막의 참고문헌 목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 * Daft의 11가지 분류기준 외에 본 연구에서 추가된 문제점.

참고문헌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근의 연구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문헌만 조사한 경우도 본 항목에 해당된다.

2.4 연구 설계의 논리 부족

연구 설계나 절차와 관련하여 설명이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이다. 연구 절차를 밝히지 않거나, 기술통계 자료가 없을 때, 요인분석이나 신뢰도 분석 등을 시행하지 않아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을 때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편의 샘플(convenience sample) 사용 또는 샘플 수가 통계 방법에 준하여 부족하다거나, 실험 설계 시에 자극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이다.

‘부적합한 연구방법론 적용’ 항목(7번)과의 차이점은 7번은 광의의 연구방법상의 결함을 말하지만 본 항목은 협의의 연구 설계상의 타당성이 결여되었을 때를 말한다.

2.5 전체 구성이나 흐름의 문제

이론이나 연구 방법론의 문제보다 간과되기 쉽지만, IS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인 *MIS Quarterly*의 최근 편집 방향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가독성(readability)은 학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Straub and Ang, 2008). 가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논문의 분량이 적절하고 기승전결의 순서에 따라 논리적이고 매끄럽게 구성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연구의 목적이나 시사점이 없는 경우에는 1번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언급이 되었음에도 전후 내용과 잘 연결되지 않아 읽는 이에게 혼란을 줄 때에는 본 항목으로 분류 된다. 예를 들어, 문헌연구가 연구의 목적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선행연구의 나열로 구성되는 경우 또는 각 소제목 간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지 않을 때를 말한다.

2.6 비전문적인 문체나 표현

전문적인 문체(style and tone)를 사용해야 가독성 높은 논문이 될 수 있다(Straub and Ang, 2008). 이 분류 기준에 해당될 때는 학술 논문에 적합하지 않은 문체나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서, 주로 논문의 공헌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키거나 과장할 때, 본인 논문의 공헌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논리적인 아닌 감성적인 표현으로 비하할 때, 또는 반대로 지나친 겸손의 표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본 항목에 속한다.

2.7 부적합한 연구방법론 적용

앞서 4번 분류 기준에서 설명한 것처럼, 광의의 연구방법상의 결함이 지적될 때 본 항목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서, 심층 인터뷰가 적합한 연구에서 설문조사법을 사용했다거나 종단(longitudinal) 연구가 필요한 연구에 횡단적(cross-sectional) 접근을 한 경우, 다중 사례연구가 적절한 연구 주제를 단일 사례연구로 접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2.8 새로운 공헌이 없어 우리 분야에 맞지 않는 연구

8번과 12번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모두 Daft (1995)의 정의와 크게 차이가 없으나, 8번은 Daft의 정의인 ‘해당 학문 분야에 맞지 않는 연구’를 확대 정의하여 ‘새로운 공헌이 없는 연구’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학술지에 게재 가능한 논문(publishable theory paper)이 되려면 기존의 지식과 사고에 유의미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공헌(what's new)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Whetten, 1989). 새로운 공헌은 이론적 공헌 뿐 아니라 경영 조직이나 IS 실무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무적인 시사점도 포함된다(Staraub and Ang, 2008). 기존에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더 이상 경영정보학 분야에 공헌할 수 없기 때문에 APJIS 보다는 타 분야의 학술지에 적합한 연구가 이에 속한다.

2.9 과도하게 복잡한 통계 기법 사용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 아니라,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잘 사용되지 않는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명확한 통계적 검증 결과는 가장 간단한 통계치로도 보여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새롭고 복잡한 통계기법의 사용은 결과를 과장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최신 통계 방법의 향상된 민감도를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2.10 연구와 결론의 불일치

연구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가설이 10개 설정되어 있는데 8개만 검증한다거나, 연구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결론에서 주장할 때, 연구의 목적과 질문이 결론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만 언급될 때 등이다.

2.11 데이터 재사용

본 항목은 연구 윤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많은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았다.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재사용하거나, 편의에 맞게 가공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데이터를 분할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두 개의 논문을 작성하거나 유사 변수를 공동 사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12 문법 오류나 오·탈자 등의 편집상 부주의

앞서 밝혔듯이 12번은 본 연구에서 신설된 분

류 기준이다.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본 문제점 자체는 심각하지 않고 경미하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심사위원의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Straub와 Ang(2008)이 밝히고 있듯이 경미한 편집상의 부주의나 문법 오류라 하더라도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나 수정될 가능성이 적어서 가독성에 영향을 줄 때는 '게재 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APJIS가 SSCI급의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 투고 논문들의 영문 초록의 문법·구문상의 오류에 대한 지적 사항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심사 소견서에 나타난 사례로는 영문초록의 문법 오류나 레퍼런스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 원고 상의 오·탈자와 표, 그림의 제목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결과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일종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분류 기준당 빈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시행하고자, 연구제안서를 작성하여 APJIS에 제출 후 편집위원 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5년 11건, 2006년 1월에서 2008년 10월까지의 241건, 총 252건의 심사 소견서를 입수하였다. 심사위원이나 논문 투고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삭제된 상태로 제공되었다.

연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류기준으로 사용할 프레임워크가 될 Daft(1995)의 각 분류 기준에 대한 정의를 서로 충분히 공유한 후, 전수조사가 아닌 2005년의 11건에 대해 먼저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모든 연구자의 내용 분석 결과가 일치하였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Daft의 분류기준에는 없었던 12번(문법 오류나 오·탈자 등의 편집상 부주의) 기준을 추가하고, 8번(새로운 공헌이 없어 우리 분야에 맞지 않는 연구) 기준을 확대 재정의 하였다. 세 명의 연구자가 참여, 2006년과 2007년은 1차 심사에서 '게

<표 2> 종합 분석 결과 (Overview)

연도	심사소견서 (건)	문제점 1 (건)	문제점 2 (건)	문제점 3 (건)	문제점 4 (건)	문제점 5 (건)	문제점 6 (건)	
2006	87	21.28%(70)*	6.38%(21)	13.68%(45)	21.28%(70)	10.54%(35)	1.52%(5)	
2007	115	16.77%(80)	4.82%(23)	16.14%(77)	18.87%(90)	15.09%(72)	2.31%(11)	
2008	39	17.52%(24)	4.38%(6)	18.98%(26)	22.63%(31)	7.30%(10)	2.19%(3)	
3개년 총합(%)		18.45%(174)	5.30%(50)	15.69%(148)	20.25%(191)	12.41%(117)	2.01%(19)	
연도	문제점7(건)	문제점8(건)	문제점9(건)	문제점10(건)	문제점11(건)	문제점12(건)	평균 문제점수	
2006	5.47%(18)	6.08%(20)	0%(0)	4.26%(14)	0%(0)	9.42%(31)	3.78	
2007	4.61%(22)	4.61%(22)	0.21%(1)	4.61%(22)	0%(0)	11.95%(57)	4.15	
2008	5.11%(7)	2.92%(4)	0%(0)	4.38%(6)	1.46%(2)	13.14%(18)	3.51	
		4.98%(47)	4.88%(46)	0.11%(1)	4.45%(42)	0.21%(2)	11.24%(106)	3.91

주) * %는 당해년도 모든 심사소견서에 나타난 문제점 수의 총합에 대한 각 문제점 빈도의 비율; ()는 빈도수.

재 불가'와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받은 모든 심사소견서를 전수조사 하였고, 2008년은 10월 21일까지 확정된 모든 심사소견서를 분석하였다. 각자 코딩을 실시한 후,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회의를 거쳐 모든 연구자의 합의를 이룬 경우에만 실제 분석에 적용하였다.2)

2006년 87건, 2007년 115건, 2008년 10월 21일 기준으로 39건, 총 241건의 심사소견서가 분석된 결과, '게재 불가'가 113건, '수정 후 재심사'가 128건이었으며, 표지를 제외한 심사소견서 본문의 분량이 1페이지인 경우가 165건, 2페이지인 경우가 49건, 3페이지 이상인 경우가 27건이었다. 심사소견서별 문제점 지적건수는 평균 3.91개였고, '게재 불가'의 경우 평균 3.95개,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평균 3.88개이었다. 문제점 지적건수는 연도별이나 심사 결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3) 종합적인 분석 결

과는 <표 2>에 정리되었다.

2006년부터 2008년의 '게재 불가'와 '수정 후 재심사'를 종합한 문제점별 빈도는 연구 설계의 논리부족(20.25%), 이론적 타당성 부족(18.45%), 이론과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문헌연구 부족(15.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을 통해 심사결과별 또는 연도별 구분과 문제점 빈도 간의 독립성을 검증해 본 결과, 문제점 빈도는 연도별로는 차이가 없었지만 심사결과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4) 따라서 '게재 불가'와 '수정 후 재심사'의 문제점 빈도 순위를 <표 3>에서 비교해 보았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게재 불가'와 '수정 후 재심사'의 문제점별 빈도의 순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게재 불가'는 1순위부터 3순위가 종합분석과 같은 순서를 나타냈으나, '수정 후 재심사'

유의수준 0.819).

- 2) 세 명의 연구자는 경영정보학 분야에서 총 연구 경력 이 20년이 되며, 그 중 한 명의 경우 *MIS Quarterly*를 비롯한 국내외 학술지의 논문 리뷰어로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다.
- 3) 심사소견서별 문제점 지적 건수는 연도(2006년, 2007년, 2008년) 및 심사결과(게재불가/수정 후 재심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연도별 ANOVA test 결과, 유의수준 0.742, 심사결과별 t-test 결과,

- 4) 연도별 문제점 빈도 교차분석에서는 셀의 기대빈도가 5이하인 문제점 6, 문제점 9, 문제점 11을 제외하였다. 카이제곱값은 16.796(자유도는 16)로 유의수준 0.05이내에서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심사결과와 문제점 빈도의 교차분석에서는 문제점 9와 문제점 11이 제외되었으며, 카이제곱값은 30.685(자유도는 9)로 유의수준 0.05이내에서 연관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3> Daft 연구와의 빈도 순위 비교

문제점	Daft 연구 (순위,(%))	개제 불가* (순위,(%))	수정 후 재심사* (순위,(%))
이론적 타당성 부족	1(21.7)	2(19.51)	3(17.51)
변수와 측정도구의 불일치	2(13.6)	7(6.28)	6(4.43)
이론과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문헌연구 부족	3(10.5)	3(13.00)	2(18.11)
연구 설계의 논리 부족	4(10.5)	1(20.40)	1(20.12)
전체 구성이나 흐름의 문제	5(10.1)	4(10.76)	4(13.88)
비전문적인 문체나 표현	6(8.9)	10(1.57)	9(2.41)
부적합한 연구방법론 적용	7(8.5)	8(6.05)	7(4.02)
새로운 공헌이 없어 우리 분야에 맞지 않는 연구	8(7.7)	6(7.85)	10(2.21)
과도하게 복잡한 통계 기법 사용	9(4.3)	11(0.22)	12(0.0)
연구와 결론의 불일치	10(2.3)	9(5.16)	8(3.82)
데이터 재사용	11(1.9)	12(0.22)	11(0.20)
문법 오류나 오·탈자 등의 편집상 부주의	-	5(8.97)	5(13.28)

주) * 해당 항목의 빈도수는 지적 문제점별 3개년 총합을 기준으로 함.

는 연구 설계의 논리부족이 1순위(20.12%)인 것은 '개제 불가'의 경우와 같으나, 이론과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문헌연구 부족(18.11%)이 이론적

타당성 부족(17.51%)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수정 후 재심사'에서는 2.21%에 불과한 새로운 공헌이 없어 우리 분야에 맞지 않는 연구가

<표 4> 좋은 논문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따른 분류(Three Skills)

좋은 논문의 조건 (Three Skills)	정 의	해당 분류 기준(<표 1>상의 문제점 번호)
이론 (Theory Skill)	단순한 결과 보고에서 더 나아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하고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적 타당성 부족(1) 이론과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문헌연구 부족(3) 새로운 공헌이 없어 우리 분야에 맞지 않는 연구(8) 연구와 결론의 불일치(10)
연구 설계 (Design Skill)	연구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설계 및 실행하고 연구 절차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수와 측정도구의 불일치(2) 연구 설계의 논리 부족(4) 부적합한 연구방법론 적용(7) 과도하게 복잡한 통계 기법 사용(9) 데이터 재사용(11)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Skill)	문맥과 논문의 전개가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기승전결을 따라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구성이나 흐름의 문제(5) 비전문적인 문체나 표현(6) 문법 오류나 오·탈자 등의 편집상 부주의(12)

<표 5> 좋은 논문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따른 종합 분석 결과

연 도	심사소견서(건)	이론 (문제점 수)	연구 설계 (문제점 수)	커뮤니케이션 (문제점 수)	총 문제점 수(건)
2006	87	45.29%(149)	33.13%(109)	21.58%(71)	329
2007	115	42.14%(201)	28.51%(136)	29.35%(140)	477
2008	39	43.80%(60)	33.58%(46)	22.63%(31)	137
	241	43.48%(410)	30.86%(291)	25.66%(242)	943

‘게재 불가’에서는 7.85%를 차지하였고, 다소 경미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문법 오류나 오·탈자 등의 편집상 부주의는 ‘수정 후 재심사’에서 높은 빈도(13.28%)를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거시적으로 주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이러한 열두 가지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 배양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Daft(1995)가 제시한 ‘좋은 논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Three Skills)’인 이론(Theory Skill), 연구 설계(Design Skill),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Skill) 능력에 대한 분류에 기반을 두어, 열두 가지 문제점을 이론적인 문제, 연구 설계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대별하여 재분류를 시행하였다. Daft(1995)의 논문에서는 각 문제점이 어떤 조건(Skill)으로 분류되는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Daft의 세 가지 조건별 정의를 참조하고 연구자 간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표 4>와 같이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서는 ‘이론(Theory Skill)’의 부족에서 기인된 문제점들이 43.48%(410개), ‘연구 설계(Design Skill)’가 30.86%(291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Skill)’이 25.86%(242개)이었고(<표 5> 참조), ‘게재 불가’에서도 이론(45.52%), 연구 설계(33.18%), 커뮤니케이션(21.3%)의 순서를 따랐으나, ‘수정 후 재심사’에서만 이론(41.65%), 커뮤니케이션(29.58%), 연구 설계(28.77%)로 커뮤니케이션과 연구 설계가 거의 유사한 빈도를 보였다.

IV. 결론 및 시사점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21일까지 APJIS에 투고된 논문 중 ‘게재 불가’와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받은 총 241건의 심사소견서를 분석한 결과 연구 설계의 논리 부족, 이론적 타당성 부족, 이론과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문헌연구 부족, 전체 구성이나 흐름의 문제 순서대로 높은 빈도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공헌이 없어 우리 분야에 맞지 않는 연구는 ‘게재 불가’에서, 문법 오류나 오·탈자 등의 편집상 부주의는 ‘수정 후 재심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유사한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석했던 Daft의 선행 연구(1995)와 비교해서 차이를 보이는데, Daft의 연구에서는 문제점별 빈도의 순서가 본 연구의 기준 서열과 같은 순서를 따르므로 가장 빈번한 문제점은 이론적 타당성 부족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의 논리 부족이었다. 더 큰 맥락인 ‘세 가지 조건’에 따른 분류에서는 Daft의 연구는 이론(59%), 커뮤니케이션(32%), 연구 설계(9%)의 순서이나, 본 연구에서는 종합분석에서 이론(43%), 연구 설계(31%), 커뮤니케이션(26%)의 순서이고 ‘게재 불가’에서도 같은 순서를 따르며, ‘수정 후 재심사’에서는 2순위와 3순위인 커뮤니케이션과 연구 설계가 거의 유사한 빈도를 보임으로써 연구 설계와 관련된 문제점의 비율에서 Daft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Daft의 연구에서는 문제점별 빈도 1순위가 *이론적 타당성 부족*이고 대분류에서도 이론적인 문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APJIS의 사례에서는 연구 설계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분석에 사용된 학술지 중 하나인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가 이론적 기여도를 가장 중시하는 학술지(Daft, 1995)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이러한 차이점이 제출 논문의 방법론적 엄밀함(rigor)의 차이를 대변할 수도 있다. 오랜 연구 전통을 유지해 온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와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의 경우 보편적인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공유된 지식 기반을 갖고 있음으로써 심사 과정에 있어서 연구의 최종적인 산출물인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전통이 짧은 국내 MIS 분야에서는 아직도 연구방법에 대한 공유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문제점이 *연구 설계의 논리 부족*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정형화되고 객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논문 심사자에게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가 '창의적인 이론'의 구축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연구 설계'와 같은 기본 전제조건에서의 문제점은 심사자들이 논문의 핵심인 이론적 공헌도에 집중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문 투고자의 분발을 요구하는 결과라 보여 진다. 특히 연구 설계와 방법론에서의 문제는 Daft의 세 가지 연구 능력 중에서 가장 쉽게 습득될 수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차이점은 Daft의 결과에서는 두 번째 주요 문제점인 *변수와 측정도구의 불일치*가 우리 분야의 경우 큰 문제점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이다. 이 문제점이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상의 문제를 대표하고 있기

에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새로운 연구 변수의 소개나 개발보다는 그 타당성이 증명된 기존 변수와 측정치를 선호하는 너무 보수적인 연구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도 가능하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APJIS에 투고된 논문들은 다양한 이유로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받게 되며 각 지적 사항을 좋은 논문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Three Skills) 관점에서 볼 때에 각 능력의 중요성이 어느 한 부분에 크게 치우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APJIS는 이론적인 문제, 연구 설계의 문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평가에 거의 같은 비중을 두고 심사하고 있으며 한 영역에만 치우쳐 있는 심사기준을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APJIS가 추구하는 논문은 '세 가지 조건'이 골고루 잘 갖추어진 논문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APJIS에서 요구하는 좋은 논문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할지를 고려해 볼 때 아래 세 가지 요점으로 집약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이론(Theory Skill)에 기반을 둔 논문이다. 이론적으로 강한 연구자는 단순한 연구 결과의 보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능력(Theory-building skill)이 뛰어나다. 이 조건이 충족된 논문은 각 개념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정당화 시키고, 연구의 공헌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연구자 개인으로서도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이고, 논문의 측면에서도 가장 갖추기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다. 두 번째 조건인 연구 설계 능력이란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논리적으로 설계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말한다. 연구 설계 능력(Design Skill)은 다른 두 기술에 비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기술이지만,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논문은 연구를 처음부터 다시 시행하지 않는 이상 수정 작업을 통해서도 개선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좋은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Communication Skill)이 필요하다. 본 조건이 충족된 논문은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간결하게 문장이 표현되고 각 문장이 문단 내에서 응집성 있게 연결된다. 또한 기승전결을 따라서 구성되므로 전체적으로 논문이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읽힌다. 다른 두 조건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지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부족한 원고는 이론과 연구 설계의 강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논문 심사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끝으로 논문 투고자 뿐 아니라 논문 심사자들에게도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

APJIS의 2007년도 게재율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이상의 제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⁵⁾ 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체계를 모든 논문 심사자가 공유하여 심사소견서 작성에 반영한다면 논문 투고자들의 심사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와 논문의 효과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심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Jauch and Wall의 연구(1989)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논문 심사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어려운 작업이고 논문 심사 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그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고 한다. 지도자의 입장(coach)을 취하는 심사소견서이건 비평가의 입장(critic)을 취하는 심사소견서이건 상관없이 '좋은' 심사소견서란 체계가 잡힌(well-defined) 심사소견서이다(Cummings et al., 1985).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논문을 심사하게 되는 학자들이 심사 과정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경영정보학계 전문가들의 암묵적인 심사기준과 경향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향후 '좋은' 심사소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APJIS의 3년 간 평균 심사소견서 분량은

5) APJIS의 2007년 논문 게재율은 47%이었으며, 게재불가율은 39%, 철회 및 이송은 14%이었다(Han, 2008).

1.42페이지이며 전체의 67%가 1페이지 이하임을 감안해 보면, 앞서 언급되었듯이 APJIS의 심사 방향은 세 가지 영역인 이론, 연구설계, 커뮤니케이션에 걸쳐 비슷한 비중으로 심사되고는 있으나, 이는 종합적인 추론이며 개별적인 논문 심사의 경우 1페이지 이내의 심사소견이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우수 학술지 심사의 경우, 연구의 개요, 거시적 문제점, 미시적 문제점으로 대별하여 다수의 페이지에 걸쳐 매우 상세한 심사소견이 피력되고 있음을 볼 때 심사소견서 내용의 질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논문 투고자에게 구체적인 개선 제안과 문제점 지적에 대한 논리를 친절히 설명할 수 있는 양적인 고려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이렇듯 논문 심사자의 더 많은 노력과 시간에 대한 요구가 APJIS의 당면 과제라면, 현재 논문 심사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학문에의 공헌'이라는 막연함을 넘어 장단기적인 구체적인 보상 방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Lee, 1995). 가령 해외 학술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수 논문심사자상 제도나 심사자가 각각의 소속 기관에서 승진 및 재임용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상 방법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로 항목의 분류시에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줄이고자 세 명의 연구자가 합의를 이룬 항목만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으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었으리라 본다. 둘째로는 12개의 분류 기준 중 의미적으로 겹칠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연구자 모두 각 항목에 대한 차이점을 확실히 공유하였고, 이론, 연구 설계,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세 가지 대 분류를 통한 추가 분석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심사소견서 분석만으로는 논문의 주제나 방법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주제 또는 연구방법론의 종류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와의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APJIS의 연구 경향은 Kim et al.(2005)의 연구나 Seo and Han(1997)의 연구와 같이 게재된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3개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고, APJIS의 심사 소견서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국내 MIS 학계 전체로 일반화 시키기에 한계가 있고 외적 타당성(external val-

idity)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APJIS는 국내 경영정보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지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MIS 분야의 연구자들과 논문 심사자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으며, 향후 APJIS의 논문 심사과정에 대한 유사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경영정보학계의 축적된 학문적 전통(cumulative tradition)을 확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References〉

- [1] Bedeian, A.G., "The Manuscript Review Process: The Proper Roles of Authors, Referees, and Editors,"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Vol. 12, No. 4, 2003, pp. 331-338.
- [2] Beyer, J.M., Chanove, R.G., and Fox, W.B., "The Review Process and the Fates of Manuscripts Submitted to AMJ,"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8, No. 5, 1995, pp. 1219-1260.
- [3] Bhattacharjee, S., Tung, Y.A., and Pathak, B., "Author Experiences with the IS Journal Review Proces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13, 2004, pp. 629-953.
- [4] Cummings, L.L., Frost, P.J., and Vakil, T.F., "The Manuscript Review Process: A View from the Inside on Coaches, Critics and Special Cases," *Publishing in the Organizational Sciences*, Homewood, IL: Irwin, 1985, pp. 193-209.
- [5] Daft, R.L., "Why I Recommended that Your Manuscript Be Rejected and What You Can Do about It," *Publishing in the Organizational Sciences(2nd Edition)*, L. Cummings and P. Frost(E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5, pp. 164-182.
- [6] Han, I., "Editor's Comment,"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8, No. 4, 2008.
- [7] Jauch, L.R. and Wall, J.L., "What They Do When Then Get Your Manuscript: A Survey of Academy of Management Reviewer Practic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2, No. 1, 1989, pp. 157-173.
- [8] Kim, K.M., Park, C.S., Kim, J.S., Lee, H.G., and Im, K.S., "An Empirical Study on Research Diversity in *Journal of MIS Research*,"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5, No. 2, 2005, pp. 149-170.
- [9] Lee A.S., "Reviewing a Manuscript for Publication,"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Vol. 13, No. 1, 1995, pp. 87-92.
- [10] Murthy, U.S. and Wiggins, C.E., "Why Manuscripts Are Rejected: An Analysis of JIS Rejections,"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6, No. 1, 2002, pp. 41-48.
- [11] Scheneider, B., "Some Propositions About Getting Research Published," *Publishing in the Organizational Sciences(2nd Edition)*, L. Cummings and P. Frost(Eds.), Thousand

-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5, pp. 216-226.
- [12] Seo, E.G. and Han, I., "Bibliometric Analysis on MIS Research,"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7, No. 3, 1997, pp. 145-165.
- [13] Straub, D.W. and Ang, S., "Readability and the Relevance versus Rigor Debate," *MIS Quarterly*, Vol. 32, No. 4, 2008, pp.iii-xiv.
- [14] Whetten, D.A., "What Constitutes a Theoretical Contribu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4, No. 3, 1989, pp. 490-495.

◆ About the Authors ◆



Choong C. Lee

Choong C. Lee is currently a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at Yonsei University, Seoul. He previously worked for Salisbury University in Salisbury, Maryland as an Associate Professor. During his tenure of over 17 years at these institutes he has been actively involved with the IT research stream. He also conducted research and consulting projects in I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other IS adoption issues. He is also working for the enterpriseIQ Corp, Lausanne, Switzerland, as a contractual Senior Researcher where the main consulting practice lies in evaluating the success of IT adoption and implementation for the corporate clients. Some research findings have been published in top IS journals, such as *MIS Quarterly*, *Decision Sciences*, *Communications of ACM*, *Information and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nd others.



Haejung Yun

Haejung Yun received her M.B.A degree from Yonsei University, Seoul, and a B.A. from Ewha Woman's University. She is currently in the Ph.D. program in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T impact, IT usage and IT service management.



Seong-Hoon Hwang

Seong-Hoon Hwang is currently a doctoral student in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He received his M.S. in Information Systems from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and his B.S. in Industrial Engineering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IS performance evaluation, IT experience and ubiquitous computing service.